

2) 순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

순천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 순천면 동외리에 1911년 3월 18일 설립인가를 얻어, 같은 해 9월 1일 개교하였다. 교지는 3217평, 교사는 271명, 기타 부속건물 96평이었다. 수업연한은 심상과 6년, 고등과 2년, 여자보습과 2년, 학급수는 8학급이었으나 신흥도시의 발전으로 몇 년 후에 15학급이 되었다. 여자보습학교는 실과여학교로 승격되었다. 교사는 학교조합원과 유지들의 노력으로 총공사비 약 3만 1342원을 들여 1931년 9월에 기공하여 1932년 2월 준공되었다.

조선인은 조선교육령에 의해 교육을 받았으나 일본인은 조선교육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조합을 만들어 학교경영을 담당하였는데, 순천학교조합은 1911년 2월에 설립되었다. 조합의 구역은 순천면 일원의 내연향·대안·조례의 각 리, 도사면의 내옥천·홍내·교량·덕월·야흥의 각 리로 호수는 250호, 인구 970명, 조합비 총액 1만 1919원, 부과총액 5,714원, 부과금 1호당 평균 23원, 1학급 경상비 1,679원이었다.¹⁾

이 학교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정의 직업별 조사를 하였는데, 관리가 가장 많고 다음은 상업·농업·공업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과 거리가 있어 실상을 조사하여 공업을 주로 하고, 여기에 상업과 농업을 가미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한국에 이관되어 1945년 9월에 순천동국민학교로 개교되었으며, 1959년 3월에는 순천사범학교부속 국민학교가 되었고, 1962년에는 순천성동국민학교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染川覺太郎, 앞의 책, 58쪽.